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안정 팔 걷었다

2022년 32명서 올해 725명 배정 시농기센터 고용주 200명 대상 고용주 준수 사항·인권 강화 교육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난 해소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준수사항과 인권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근로자 입국 후 절차, 근로 계약, 숙소 운영 등 농가주의 사항과 노동자 근로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주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에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22년 첫 해 32명으로 시작해 2023년 358명, 2024년에는 725명을 배정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에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집중해서 이뤄진다.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어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인력을 소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시농부 농촌일손 보태기' 등 다양한 농촌 인력 확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린 함평군 엑스포공원. (함평군 제공)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매출 '경충'

축제 5일만에 지난해 매출 초과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 축제 행사장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매출 대박을 터뜨렸다. 축제 시작 5일 만에 지난해 축제의 전체 매출을 초과하며 강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강진군의 우수 농특산물뿐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축제 부스 중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이 주관해 24개 회원사가 운데 18개 업체가 참여해, 쌀, 잡곡, 생표고버섯, 떡류 등 총 62종의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축제 5일차인 30일까지 농특산물 매출은 270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갈대축제의 전체 판매액인 2483만4000원을 넘어섰다.

올해 직거래장터에서는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검정쌀 600g을 증정하는 사은품 이벤트와 스톱워치 10초 맞추기 이벤트, 무료 시음 및 시식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은 이번 축제를 앞두고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 내 농어업인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신규회원 모집을 진행했다.



강진군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행사장 내에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가입한 4개 업체가 직거래사업단에 합류해 총 24개 업체로 확대됐으며 갈대축제 직거래장터 행사에 신규 업체 중 3개 업체가 참여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직거래 장터를 통해 앞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강진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관광객들에게 강진을 알리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든든한 동력이 되어주며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안겨주고 있다"며 "강진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국향대전 17일 일정 마친 함평엑스포공원 밤이 아름다운 겨울빛축제장으로 변신한다

입장객 16만명 국향대전 성료 26일~12월25일 겨울빛축제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함평 엑스포공원이 '밤이 아름다운 겨울빛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함평군은 남도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7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3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국향대전은 '함평 국화의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국화로 만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종 게이트 등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미리 느낄 수 있는 연출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를 운영해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에서는 가을&겨울 음악회, 군민 플래시몹 공연, 청소년 프린지 페스티벌, 국화 시화전 및 시 낭송, DJ 뮤직박스, 호남가 따라 부르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또 국화차 시음, 모바일 스탬프 투어, VR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특히 중앙광장과 국화분재 작품 전시관에는 신품종을 활용한 15가지 수형과 분재 120점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으며, 마법의 성과 9층 꽃탑

은 인기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했다. 국향체험존과 습지공원에서는 국화 들녘과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탄소제로 놀이터, 전통놀이 체험, 국화 캘리그래피, 국화 팔찌와 키링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축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입장료 수입을 포함해 총 13억5000여 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축제 유료 입장객은 16만424명으로 집계됐다.

함평군은 4일부터 6일까지 축제 운영을 위해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공연 무대를 철거하며 7일부터 엑스포공원을 다시 개장한다. 국향대전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중앙광장의 국화 트리와 종소리 구조물은 그대로 유지해 겨울빛 축제장으로 활용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주시는 자원봉사자와 600여 명의 공직자,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밤이 더 아름다운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개최할 겨울빛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용 기자 hsy@kwangju.co.kr

담양 창평고 1학년 206명 '진로진학멘토링'

총동문회 장학재단 후원으로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 탐방



창평고 신입생 진로진학멘토링 참가 학생들이 지난 28일 연세대학교 상정탑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평고 제공)

창평고등학교(교장 김영수)가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1학년 전체 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를 탐방하는 '신입생 진로진학멘토링'을 실시했다.

창평고 '신입생 진로진학멘토링'은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직접 찾아가 대학교의 공식 탐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졸업생을 만나 진학에 도움이 되는 학습법 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를 방문해 대학 홍보팀과 대학 캠퍼스를 탐방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창평고 총동문회 장학재단(이사장 최승동)의 후원으로 이뤄져 졸업생과 학교 재학생이 연결돼 끈끈한 연대감을 키우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창평고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액의 후원금 등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 총동문회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기회가 대학 진학 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장성군,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컨설팅' 호평

장성군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를 위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컨설팅'이 호평을 받았다.

장성군은 전남도와 함께 조성한 장성읍 미라마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를 위해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황룡강의 시작점이자 장성호 하류 지역에 위치한 미라마을은 민물고기 요리 맛집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가게마다 비린내를 없애는 비결을 지녀 고객들이 두둑다.

장성군은 앞선 2019년 10억 원 규모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미라마을에 장어정식 특화거리를 조성한 바 있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장성읍 남도음식거리 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군은 최근 현장방문을 거쳐 '컨설팅' 대상을 확정하고 상차림 조리교육, 조리환경 개 선안 도출 등 현장지원을 시행했다.

8/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대형화재 대비 이상무"...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8개 부서·기관·단체 180여명 참여

장성군이 최근 모암저수지 일원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훈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장성군과 장성소방서, 장성경찰서, 영암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 장성지사, 케이티(KT)복광주지사, 장성군의용소방대 등 18개 부서·기관·단체 18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축령산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을 실시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성군정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한 토론훈련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역으로 부군수 주재로 상황 판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부서·유관기관별 협력·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훈련과 동시에 진행된 현장훈련은 서삼면



모암저수지 주차장 일원에서 시행했다. 화재 발생 상황전파, 초동 대응,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곽영호 장성군 부군수는 "실제같은 훈련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로, 재난상황 발생 시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어르신 차량 '이탈경보장치' 무상 설치

장흥군이 노인 운전자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고령 운전자 차량 35대에 차로 이탈 경보장치를 무상 장착 지원했다

장흥군은 생계유지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

차로이탈경보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 및 추돌 등 보행자 추돌경보를 소리와 진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현장에서 기기설치를 한 어르신은 "오래된 내 차에 더욱 애착을 갖고 기기를 장착한 만큼 무사고로 오래 타야겠다"며 "설치에만 40분이 걸리는 기기를 하나하나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교통사고 감소와 무사고 차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겨울철에는 교량과 터널 등 통행시 주의를 기울이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갑속운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